

# 谷城文化財



社團  
法人

谷城文化院



## 文化財를 펴내면서



谷城文化院長  
金吉榮

물맑고 공기좋은 내고장은 한폭의 그림과 같이 산과 강으로 이루어져 山紫水明한 아름다운 곳이다.

뿐만아니라 내고장 住民들은 옛부터 民族主體意識이 뚜렷하여 나라가 危機에 處했을때 救國理念으로 忠誠을 다했다.

그러므로 큰 人物이 많이 輩出된 곳이다.

그러나 認識 不足으로 人材貧困에다 가난한 고장으로 잘못 傳해 오고 있기에 今般 本文化院에서 郷土史를 整理하여 管内는 勿論 京郷各地에 圖錄으로 紹介코저 作業을 始作하니 文化財 價値가 充分한 資料가 많음에도 國家 또는 地方文化財로 未指定된 分野에 아쉬움 뿐이었다.

끝으로 本圖錄 發刊에 物心兩面으로 支援해주신 孫琦晶郡守님께 感謝드리며 一卷에 漏落된 分野는 整理되는대로 二卷追錄 할것을 約束드리면서 人事에 가름한다.

# 目 次

表題：雲庵 趙鏞敏

---

## 國家指定

---

### ● 寶物

- 寂忍禪師照輪清淨塔……………6
- 廣慈大師塔……………7
- 廣慈大師碑……………8
- 泰安寺마라……………9

### ● 無形文化財

- 谷城돌실나이……………10

### ● 重要民俗資料

- 涪池村精舍……………11

---

## 道 指 定

---

### ● 有形文化財

- 五層石塔……………12
- 天順銘銅鍾……………13
- 忠烈門……………14
- 泰安寺 凌波閣……………15
- 泰安寺 一柱門……………16
- 道林寺掛佛……………17
- 玉果鄉校……………18
- 涵虛亭……………19

### ● 地方記念物

- 德陽書院……………20
- 龍山齋……………21
- 道林寺 溪谷……………22

## ● 民俗資料

· 木造神像	23
--------	----

## ● 文化財資料

· 道林寺	24
· 泰安寺	25
· 觀音寺	26
· 德山祠	27
· 道東廟	28
· 柳月坡將軍旌烈閣	29
· 谷城鄉校	30
· 石造如來像	31
· 壽星堂	32
· 修道庵매화나무, 잣나무	33
· 永類齋	34
· 泰安寺三層石塔	35

---

## 未指定文化財 資料

---

· 檀君殿	36
· 馬天牧將軍墓	37
· 永歸書院	38
· 箕聖殿	39
· 小松鄭在健	40
· 梧岡祠	41
· 白堂三 · 一運動記念碑	42
· 尹正九志士碑	43
· 石田柳健永褒賞碑	44
· 義馬塚	45
· 聖輪寺	46
· 美術展示館	47
· 李相俊斗 古典舞蹈	48
· 韓炳文의 洛竹粧刀	49



## 谷城郡 沿革

谷城郡 歷代系統을 찾아보면 先史以前은 記錄이 없고 原住民流移民이 原始生活을 營爲하면서 馬韓治下에서 있다가 百濟近肖古王24年 馬韓滅亡(369年) 以後 百濟治下에 있었으며, 다시 新羅統一期, 後百濟, 高麗, 朝鮮, 大韓에 이르기까지의 沿革으로 되어, 百濟文周王 (서기475)時에 欲乃郡(一名 浴川)이라 稱하고 邑을 現竹谷面 堂洞里에 두니 近肖古王以後 百年間 部族 國家로서 生活을 營爲해 왔던 것이다.

新羅 景德王16年(新羅統一時代, 3090/757)에 谷城이라 改稱하고 領縣으로 同福, 求禮, 富有(住岩) 三縣을 領有하였다가 武州(光州)에 隸屬하였고 高麗初에 昇平·領縣(昇州)에 屬하였다가, 高麗初 顯宗9年(1018/3351)에 羅州에 屬하였고, 高麗初 明宗2年(1172/3505)에 監務를 設置하고, 高麗初 辛昌末年(1389/3722)에 島夷亂(倭寇)으로 所陷되어 現動樂山下로 移邑하니 그 場所는 再考할 餘地가 있다.

朝鮮朝 太宗13年(1413/3746) 10月에 各道邑縣 稱號를 고치고 縣監을 두고 南原都 護府로 屬하고, 朝鮮朝 宣祖30年(1599/3930)에 同府로 合하고, 朝鮮朝 光海元年(1609/3942)에 同府에서 分離後 縣이 되고, 朝鮮朝 高宗3年(光武·1899/4232) 秋에 改制 改編 郡守를 두고, 日帝侵略時(1914/4247)에 元玉果郡, 玉山, 水, 立, 兼, 火, 只의 各面과 求禮郡 古達面 一部가 本部에 合하고 現在 11邑面, 126個里로 되었다.

## 寂忍禪師照輪清淨塔

指定番號: 寶物 第273號

所有者: 泰安寺

所在地: 谷城郡 竹谷面 元達里

指定年月日: 1963年 1月 21日



이 탑은 泰安寺의 開山祖師인 慧哲스님의 浮屠塔이다. 이 부도는 八角圓堂型이라는 新羅 석조부도의 전형을 잘 보여 基壇部부터 屋蓋石과 上輪部에 이르기까지 팔각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도의 건립연대는 신라 景文王 元年(861)으로 추정된다.



# 廣慈大師塔

指定番號: 寶物 第274號

所有者: 泰安寺

所在地: 谷城郡 竹谷面 元達里

指定年月日: 1963年 1月 21日



고려초(高麗初) 태안사(泰安寺)를 증창한 광자대사(廣慈大師)의 탑(塔)과 비(碑)로 고려 제4대 광종(光宗) 원년(元年950)에 세워졌다.

부도탑(浮屠塔)은 팔각원당(八角圓堂)의 기본형을 따라 지대석(地臺石)으로부터 상륜(相輪)까지 8각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탑비(塔碑)는 탑신(塔身)이 없고, 귀부(龜趺)위에 이수(螭首)만이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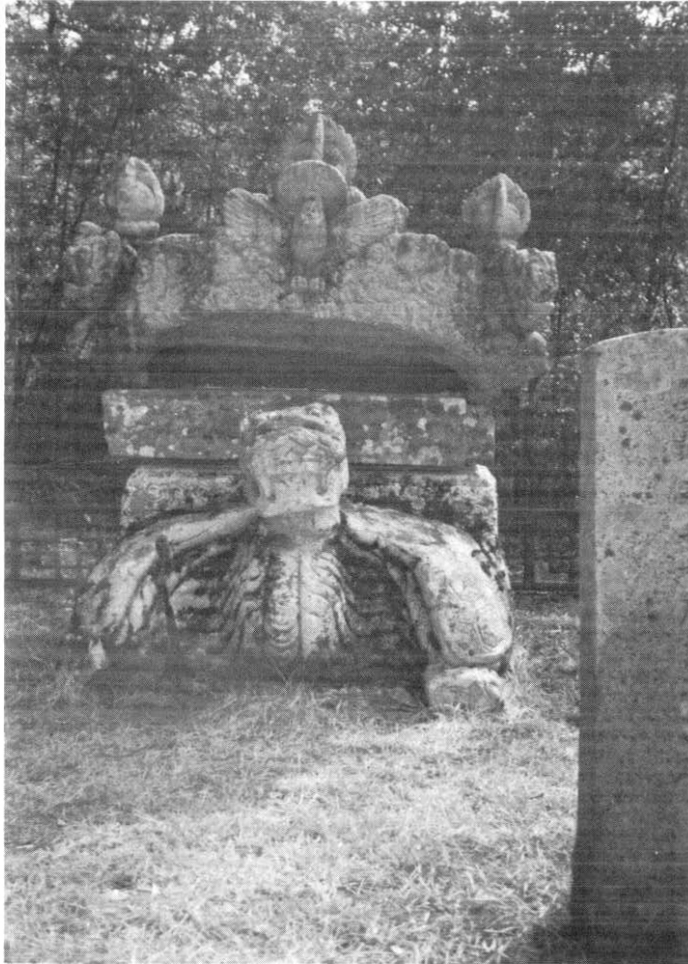
## 廣慈大師碑

指定番號: 寶物 第275號

所有者: 泰安寺

所在地: 谷城郡 竹谷面 元達里

指定年月日: 1963年 1月 21日



고려초(高麗初) 태안사(泰安寺)를 중창한 광자대사(廣慈大師)의 탑(塔)과 비(碑)로 고려 제4대 광종(光宗) 원년(元年950)에 세워졌다.

부도탑(浮屠塔)은 팔각원당(八角圓堂)의 기본형을 따라 지대석(地臺石)으로부터 상륜(相輪)까지 8각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탑비(塔碑)는 탑신(塔身)이 없고, 귀부(龜趺)위에 이수(螭首)만이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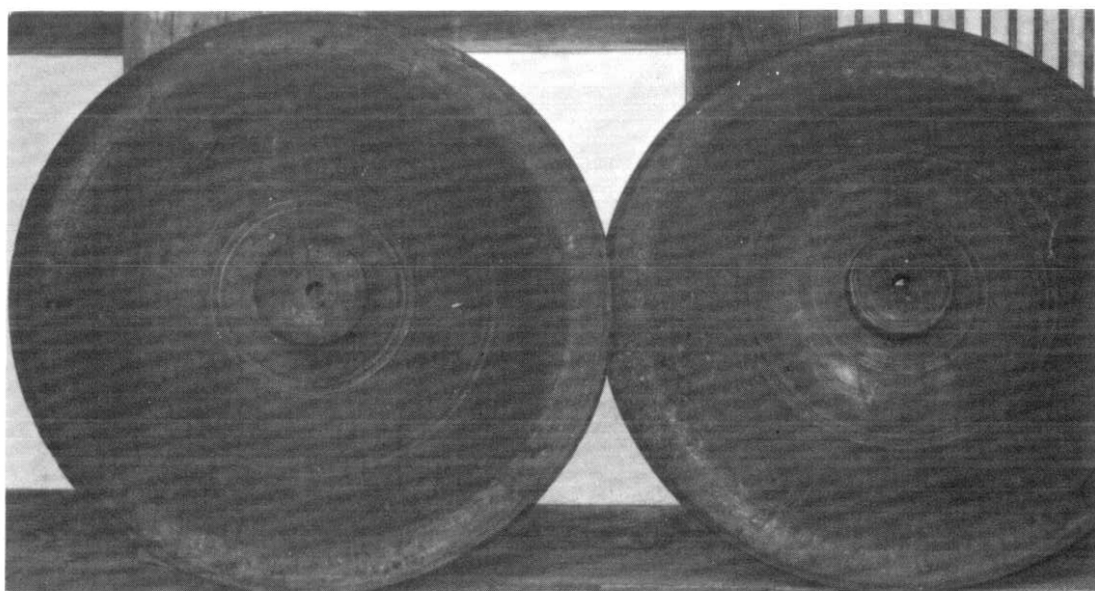
## 泰安寺바라

指定 番號: 寶物 第956號

所 有 者: 泰安寺

所 在 地: 谷城郡 竹谷面 元達里

指定年月日: 1988年 6月 16日



놋쇠로 鑄造된 한쌍의 大鉢로서 兩表面에 1백여자의 點字銘文이 있어 뚜렷한 年代와 제작내용을 알 수 있다. 형태는 圓形의 중심부에 조금 튀어나온 돌출부가 있고 그 가운데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다. 또 대형인 重量때문에 필요할시 들어서 옮기는데 불편을 고려하였는지 기둥에 固定시켜 놓은 흔적이 있다.

銘文은 表面의 원형을 따라서 點字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字數와 文句가 多少 상이하다. 한쪽의 銘文을 보면 「桐裏山 泰安寺大鉢正統十二年丁卯八月日造大功德主孝寧君施主安城李氏□□純化主持…景泰五年甲戌三月日改造大功德主…」 등으로 되어 있다. 銘文에 의하면 이 大鉢은 孝寧大君의 功德으로 1447年(世宗 29)에 造成되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7年후인 1454年(端宗 2)에 다시 改造한 것이다.

孝寧大君은 太宗의 둘째 아들이며 世宗의 형으로써 圓覺寺의 創建을 감독하였으며 평소 전국을 돌아다니며 佛事に 많은 도움을 주었다.

## 谷城돌실나이

指定番號: 無形文化財 第32號

技能保有者: 金点順(1914. 4. 26生)

傳承地: 谷城郡 石谷面 竹山里

指定年月日: 1970年 7月 22日



옛날에는 돌실麻布가 값도 높았고 人氣높은 品目으로 待優도 받았든 工藝品이었으나 只今은 섬유産業化로 뒤지고 있다. 그러나 金点順할머니는 14才에 시집와서 平生을 麻布짜기의 외길人生으로 살아오면서 오직 우리나라 固有의 傳統文化藝術을 保存키 爲하여 조카 며느리에게 傳授하고 있다 하며 生存時 넓은 傳授場一棟 짓는것이 所願이라 한다.

## 渚池村精舍

指定 番 號 : 重要民俗資料 第155號

所 有 者 : 沈海燮

所 在 地 : 谷城郡 立面 齊月里 280

規 模 : 本屋4間楹, 舍廊屋3間, 行廊5間

時 代 : 朝 鮮

指定年月日 : 1984年 1月 10日



섬진강이 반달꼴로 끼고 돌며 멀리 光州 無等山까지 百里가 거침없이 바라 보이는 좋은 집자리에 위치했다. 안채는 建築年代를 19世紀 初정도로 推定하며(口傳으로는 18世紀까지 올라감) 渚池村 精舍와 행랑채는 당시의 건물이 약간 改築된 것으로 보인다.

안채는 4間一字形으로 전후퇴를 두면서도 평면은 겹집의 형태이다. 平面의 構成은 서쪽으로부터 上下 2間 부엌, 다음은 중앙에 큰방, 앞뒤퇴에는 툇마루를 깔고 다음은 前面에 左右 2間대청을 두며 後面에는 도장과 작은 방을 차례로 配列했다.

構造는 4平柱 5樑으로서 기단은 자연석 허튼층 쌓기로서 네벌대 높이며 礎石은 덩벙주초이다. 기둥은 전후면과 동쪽 가운데 기둥은 두리기둥으로 하고 기타 내진주 기둥은 네모꼴이다.

안채에 축을 맞춘 마당 앞에는 행랑채가 배치되고 이것의 동쪽에 약간 안쪽으로 디밀어 이 집의 사랑채이면서 동네사랑인 渚池 精舍가 자리했다. 평면은 3間전후 퇴집으로서 서쪽으로 부터 가운데에 사랑 아래·웃방이 배치되고, 맨 끝에 대청이 놓였다. 예전에는 동네 書堂으로 쓰였다고 하며, 자연석 기단, 덩벙주초, 두리기둥으로 되었으며, 집 앞의 커다란 자연석은 정원 시설물처럼 印象的이다.

## 五層石塔

指定 番號 : 地方有形文化財 第11號

所 有 者 : 國 有

所 在 地 : 谷城郡 梧山面 柯谷里 2

規 模 : 總高 6.2m

材 料 : 花崗岩

時 代 : 高麗時代

指定年月日 : 1972年 1月 29日



이 五層石塔은 原來 이 近方에 寺刹이 있었던 것으로 推測되나 寺址의 痕迹은 전혀 없고 오직 이 五層 石塔만 遺存되고 있다. 基壇部 構成은 通式의 二重 基壇인데 좀 特異한 것은 下段 基壇部四면에 隅柱를 省略해 버렸으며 下層 甲石은 두껍고 數枚 長板石으로 結構하여 下面에는 副椽을 두었으며 매우 形式化되었다. 그 위로는 二段의 角形石材를 얹어 基壇中石을 받고 있는 바 이는 通式과는 약간 다른 彫法을 보여주고 있다. 그위에 매우 낮은 中石을 올려 上層 基壇部를 形成하였으며 各面에 四隅柱를 模刻했다.

上臺甲石은 平板石으로 下面에 副椽이 있고 上面에는 水平을 이루었으며 中央에 角形 물당을 하여 塔身을 받았다. 塔身部는 塔身과 屋蓋가 各 一石씩이며 各層 屋身面에는 四隅柱形이 模刻되었고 다른 彫飾은 보이지 않는다. 二層부터는 갑자기 遞減되어 屋身이 짧아지면서 安定을 취했는데 이는 五層까지 同一한 彫法이다.

屋蓋石 上面은 隅棟이 뚜렷하고 傾斜를 보였으며 轉角에 이르러 反轉되었다. 下面은 水平인데다 層階 받침은 四層까지는 三段이고 五層에서만 二段로 줄었다. 相輪部는 모두 流失되어 遺存品이 하나도 없다.

이 五層石塔은 1978年度에 郡에서 주위를 淨化하고 保護柵을 設置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全體적으로 보아 塔이 優雅하고 彫角技法이 매우 洗練되어 安定感을 보였고 全南地方에서는 秀作에 속한다 하겠다.

## 天順銘 銅鐘

指定番號: 地方有形文化財 第24號

所有者: 泰安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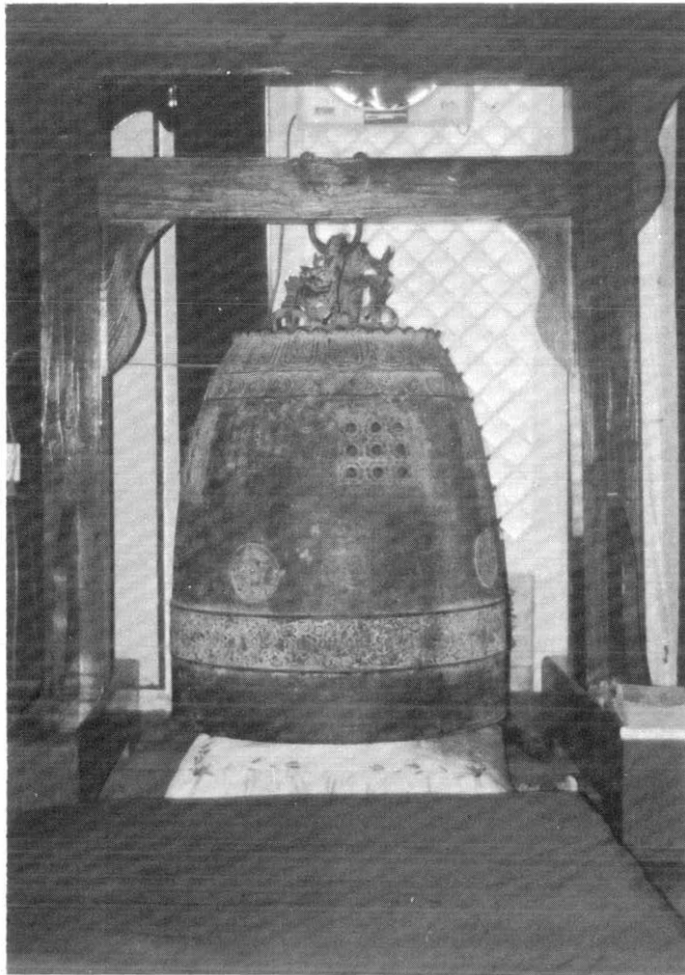
所在地: 谷城郡 竹谷面 元達里 20

規模: 總高 96.5cm, 口徑 66cm

材 料: 銅

時 代: 朝鮮 宣祖14年(1581年)

指定年月日: 1972年 1月 29日



이 銅鐘은 우리나라 韓國鍾의 樣式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朝鮮時代에 흔히 볼 수 있는 銅鐘中の 하나다. 頂部에는 甬筒과 龍鈕가 있으며 龍頭는 매우 선명하나 如意珠를 물고 있지 않은 것이 特異하다.

鐘身 中央으로 다음과 같은 銘文이 陽刻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天順元年三月日 大鐘鑄焉破 又萬魔九年四月日大鐘改鑄次 金四百餘斤入鑄」라 記錄되어 있다. 이 銘文은 楷書體로 되었는 바 여기 내용에 의하면 天順元年(1457)에 鑄造한 것이 깨져 다시 金 4百斤을 넣어 萬曆 9年(1581)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西紀 1581年은 甲寺 銅鐘鑄造年代보다 3年을 앞선 年代인데 그 當時 朝鮮時代의 韓國鍾 樣式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銅鐘으로서 그 價値가 매우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 忠烈門

指定番號: 地方有形文化財 第51號

所有者: 密陽朴氏宗中

所在地: 谷城郡 立面 三梧里 山60

規模: 正面 三間, 側面 二間, 八作지붕

時代: 朝鮮 純祖5年(1805)

指定年月日: 1974年 9月 24日



이 建物은 다듬어진 圓形의 礎石위에 圓柱를 세우고 多包架構法을 갖춘 典型的인 旌閭로서의 建築樣式을 지니고 있다. 前面에는 中央圓柱 平枋위의 櫺頭에서 龍頭를 立體的으로 彫刻露出 시켰는데 이는 多包後期樣式에서 나타나는 形式中의 하나라 하겠으며 四面 주위로는 홍살을 들렸다.

이 建物은 朝鮮 仁祖5年(1627年) 丁卯胡亂때 倡義로 淸州, 黃州等地에서 戰功을 세운 朴堰培와 그의 夫人 完山 李氏에 對한 忠과 烈을 記念키 위한 賜額旌閭이다. 朴堰培의 字는 好中, 號는 一心軒으로 世宗때 樂律에 精通하여 高句麗의 王山岳, 新羅의 于勒과 더불어 우리나라 三大樂聖이라 일컫는 蘭溪 朴堧의 五代孫으로 谷城郡 立面 三梧里(弓洞)에서 出生, 仁祖4年 丙寅(1626年) 武科에 及第하였으며 1年뒤에 丁卯胡亂이 일어나자 倡義하여 淸州, 黃州에 戰功을 크게 세운후 殉節하였다. 뒤에 招魂返葬의 날에 夫人 完山李氏는 二歲의 幼兒를 媿叔에게 부탁하고 「夫爲國盡忠 婦爲夫貞烈人之常也」라 쓰고 自決하였다. 이러한 忠과 烈이 後代에 알려져 李朝 純祖5年 乙丑(1805年)에 나라에서 童蒙敎官兼 宣武原從三等을 贈하고 旌閭를 命하여 賜額하였다. 懸板에는 「忠臣 贈童蒙敎官 朝奉大夫 朴堰培 妻烈婦 完山李氏之閭」라 刻하여져 있다. 1976년에 補修 丹青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凌波閣

指定番號: 地方有形文化財 第82號

所有者: 泰安寺

所在地: 谷城郡 竹谷面 元達里 18-1

規模: 正面 三間, 側面 一間

時代: 朝鮮時代

指定年月日: 1981年 10月 20日



泰安寺는 桐裏山 기슭에 자리잡은 古刹로서 신라시대 유명한 九山禪門중에 들어가는 名刹의 하나다. 전설에 의하면 景德王 元년에 이름 모를 神僧 세사람이 이곳에 절터를 잡고 공부하여 그때부터 절의 역사는 시작되고 文聖王 때는 名僧慧徹이 절을 건축하여 그때부터 大安寺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한다.

泰安寺는 新羅 文聖王 12年(850) 慧徹禪師가 創建하고 高麗 太祖24年(941) 廣慈大師가 重修하였으며 그뒤 파손되었던 것을 朝鮮 英祖43年(1767)에 복원하였다. 계곡의 물과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 건물을 凌波라 이름했다고 한다. 이 건물의 특이한 점은 橋梁과 金剛門과 樓閣을 겸했다는 점이다. 세속의 번뇌를 이 다리를 건너면서 던져 버리고 佛界로 入門한다고 한다.

이 건물은 正面 3間, 側面 1間的 맞배지붕으로 계곡의 양측에 石築을 쌓아 축대를 만들고 그 양쪽에 통나무로 보를 걸치고 다시 이 통나무에 직각방향으로 굽은 판으로 바닥을 깔았다. 그 위에 方形의 통나무로 柱礎를 대신하는 하인방을 걸치고 약간 가는 원주를 세웠다. 圓柱의 위에는 창방과 주두가 걸구되고 주심포와 이익공형식을 혼합한 포작이 소로와 첨차를 갖추고 외 1출목의 특수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화반은 코끼리, 해태, 귀면등으로 장혀를 받쳐주고 있다. 보위 위에는 양쪽의 중도리에 판대공을 놓고 조그마한 반자를 걸었고 중앙칸에는 龍頭를 빼내어 장식했다.

## 泰安寺 一柱門

指定 番號: 地方有形文化財 第83號

所 有 者: 泰 安 寺

所 在 地: 谷城郡 竹谷面 元達里 20

規 模: 正面 一間, 맞배지붕

時 代: 朝鮮時代

指定年月日: 1981年 10月 20日



凌波閣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桐裏山 泰安寺라 쓴 현판이 있는 일주문에 이른다.

이 건물은 高麗太祖 20년頃に 廣慈禪師가 創建하였는데 高宗 15년에 崔瑀가 重修하였고 1917년에 曠月禪師가 重修하였다고 한다.

일단의 낮은 기단위에 덩벙柱礎를 놓고 하부직경이 두꺼운 민흘림이 강한 원주를 세웠다. 기둥위에는 龍을 설치하여 장식하였고 그 위에 보를 걸쳐고 柱頭를 놓았다. 다시 그 위에는 外4出目 内3出目으로 된 공포는 隅部の 限大와 서로 얹혀 짜맞추고 있다.

이 건물은 多包系の 건물로 柱間包가 正面에 3組, 側面에 1組 있고 仰舌의 仰曲이 완만하다.

커다란 원주 앞에는 보조기둥인 가는 8각형으로 된 細柱가 받치고 있다. 이 기둥의 위는 마치 흙으로 빚어낸 듯한 접시모양의 주두가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고 겹처마이며 측면에는 風板이 있다.

泰安寺에서 6·25때 소실되지 않고 凌波閣과 더불어 남아 있는 貴重한 資料이다.

## 道林寺 掛佛

指定番號: 地方有形文化財 第119號

所有者: 道林寺

所在地: 谷城郡 谷城邑 月峰里 327

規模: 가로 708cm, 세로 775cm

材 料: 麻

時 代: 朝鮮 肅宗9年(1683)

指定年月日: 1985年 2月 25日



道林寺는 新羅武烈王 7年(660) 元曉大師가 創建하였는데 當時 道人들이 숲같이 모여들었다 하여 道林寺라 했다고 한다. 그 뒤 憲康王 2年(876) 道詵國師가 重創을 하고 智還大師가 三創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또 一說에는 太祖의 계비(? ~1396) 神德王后가 이 절을 후원하고 神德寺라 불렀다고 전한다.

이 掛佛幀畫는 평소에는 掛佛函속에 넣어 두어 大雄殿 불상 뒷편에 奉安해 두었다가 절에 행사가 있을때면 꺼내어 信徒들 앞에 내놓기 때문에 쉽게 接할 기회가 적다. 이 三尊佛幀畫는 17세기 후반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本尊佛은 結跏趺坐를 한 坐像인데 手印은 降魔觸地印을 짓고 있는 전형적인 釋迦如來坐像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머리는 뾰족한 寶珠形의 頂上髻珠가 있고 螺髮은 극도로 형식화 되었다. 얼굴은 둥근 원만상으로 긴 눈썹에 눈을 작은 편이다. 左右대칭으로 서있는 두 菩薩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왼쪽보살(向右)은 寶冠에 化佛이 묘사된 것이 오른쪽 보살(向左)과 다르다.

이 掛佛幀畫는 전체적으로 靑·紅·綠 그리고 연분홍색이 主調를 이루고 있는바, 이는 아직까지 朝鮮前期의 調和된 色感을 엿볼 수 있으며, 정확한 年代를 알 수 있는 書記가 있어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 玉果 郷校

指定 番號: 地方有形文化財 第109號

所 有 者: 玉果郷校

所 在 地: 谷城郡 玉果面 玉果里 15-1

規 模: 郷校一圓

時 代: 朝鮮時代

指定年月日: 1985年 2月 25日



玉果郷校는 太祖元年 壬申(1392年)에 諸道按察使에 命하여 創建하였다고 傳해 지나 未詳이다. 원래는 舊邑基인 蓮花里 鳳山에 있었으나 후에 다시 1649年頃 栗亭으로 옮겨갔다.

玉果郷校가 현재 위치로 옮긴것은 英祖32年(1756年)인데, 風水說에 따라 당시 縣監인 宋明欽에 의해서 移建되었다. 이후 1796年(正祖20)과 1850年(哲宗9)에 대대적인 補修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郷校의 規模는 大成殿, 明倫堂, 內三門, 東·西齋, 外三門, 校直舍 등이 있는데 前에 있었다던 育英齋, 藏板庫, 祭器庫 등은 보이지 않는다.

孔子外 26位牌를 모시고 있는 大成殿은 正面 3間, 側面 3間으로 약 110cm 높이의 基壇을 쌓고 圓形의 定平柱礎에 圓柱를 세웠는데 약한 배흘림성이 보이며 架構는 2高柱 5樑에 공포는 羊舌形 齊珙과 헛침차의 끝이 仰舌모양을 한 柱心包系의 外一出目 2翼工樣式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겹처마이며 正面의 벽은 板壁이다.

明倫堂은 正面 5間, 側面 2間的 樓建物로 樓下柱의 높이는 약 180cm로 허튼층 막돌쌓기의 基壇을 쌓고 自然石의 덤병柱礎에 민흘림의 圓柱를 세웠는데 다만 内部의 高柱는 方柱이다. 架構는 一高柱 5樑이며 無翼工式이다. 内部를 보면 左右에 다락이 있고 壁은 板壁과 머름, 箭窓 그리고 交窓으로 되어 있으며 밖에는 약30cm폭의 略式 鷄子欄干이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겹처마이며 風板이 있다.

東齋는 正面 3間, 側面 1間으로 3樑架에 맞배지붕이며 百齋는 正面 4間 側面 1間 前退에 우진각지붕이다.

## 涵 虛 亭

指定 番 號 : 地方有形文化財 第160號

所 有 者 : 沈 海 燮

所 在 地 : 谷城郡 立面 霽月里 1016

規 模 : 정면 4칸, 측면 2칸, 八作瓦家

時 代 : 朝鮮時代(1543年)

指定年月日 : 1988年 3月 16日



이 건물은 조선중종 38년(1543)에 沈光亨이 後學을 위해 涪池村精舍(重要民俗資料 155호)를 짓고 이 지역 儒林들과 풍류를 즐기기 위해 지었다는 전형적인 누정건축이다. 함허정은 高宗時의 邑誌에는 洗然亭이라 기록되기도 하였으나 동일한 정자이다.

이곳은 경치가 좋아 玉果縣監 등이 鄉飲禮를 베풀던 곳으로 정자 밑으로 蟾津江이 흐르고 수목이 울창하여 지방유림들이 詩作·吟風한 곳이다.

본 정자는 섬진강변의 구릉을 평평하게 整地하여 우측으로 섬진강과 평야를, 전방의 전망은 천마봉을 향하여 남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군지촌 정사와는 100m 가량 떨어진 위치이다.

외벌대의 낮은 콘크리트 기단위에 윗면만 다듬은 덩벙주초를 놓고 外陣柱는 圓柱를, 內陣柱는 方柱를 세웠다. 기둥머리부분의 柱間에는 昌枋을 걸치고 小果를 끼워 長舌반침 굴도리를 그 위에 얹었다. 기둥윗부분에는 주두와 보아지를 놓아 보렘목을 아래서 받치고 있다. 대들보는 평주위에 얹었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우물천장을 만들었다. 좌측단부인 우물천장부분은 도리에서 직접 대들보를 충량에 연결하여 공간을 만든 기법을 보이고 있다.

실의 구성은 3면이 트인 마루 1칸, 방 2칸반, 그리고 반칸 크기로 쪽마루형 마루를 한단 높인 함실아궁이의 순으로 되어 있다.

창호는 예전에는 빗살문이었는데 개수하여 현재는 띠살문이며, 벽은 심벽구조로 회를 발랐다.

## 德陽書院

指定 番號: 地方記念物 第56號

所 有 者: 平山申氏家門

所 在 地: 谷城郡 梧谷面 德山里

指定年月日: 1981年 10月 20日



申崇謙: 高麗太祖 王建時 사람이다. 初名은 能山이요, 先代는 全羅道 谷城에서 살았으며 高麗太祖가 平山으로 賜鄕을 하고 諡號는 壯節公이다.

公은 태어나면서부터 長大하고 勇猛스러웠으며 神通한 資質과 機智가 있었고 활 쏘는 재주는 百發百中으로 참된 將才이었다. 일찍 太祖를 따라 平山에 나갔을 때에 세 기러기가 높이 날아가매 太祖가 諸將더러 쏠 것을 命하니 公이 말하기를 「어느 기러기를 쏘리까」하매 太祖가 三雁左翼을 命했다(1918年刊 谷城邑誌에 中雁左翼은 誤)

公이 몸을 번드기며 한 살을 쏘아 太祖가 命한대로 맞히니 太祖가 그 弓術에 感嘆한 나머지 세 기러기가 지나가던 땅 三百結을 下賜하여 이 地帶를 別業을 삼도록 하고 이름을 弓位坊이라 하여 世世로 지켜오고 있다.

天授 十年(3260/927丁亥) 九月에 太祖가 甄萱을 大丘 公山 桐藪에서 맞아 大戰中 戰勢가 不利하게 되어 包圍를 當하여 甚히 急하게 되었을 때에 公이 大將으로서 容貌가 太祖와 비슷했으므로 太祖를 藪에 숨기고 御車를 갈아타고 나가 싸우다가 戰死했다. 包圍가 풀리고 太祖가 겨우 몸만 살아나서 돌아와 光海州 昭陽江 北쪽 方洞에 禮葬後 祭典을 下賜하고 願堂을 지어 冥福을 빌게 하였다. 公의 아우 能吉과 아들 甫藏을 元尹을 삼았다.

萬歷己丑에 天德山下에 祠宇를 세워 享祀케 하고 肅宗 乙亥에 德陽祠라고 賜額되었으며 또 鄉人이 城隍祠를 세워 主神을 삼았으며 全國 平山申氏들이 제사때 모인다.

# 龍山齋

指定番號: 地方記念物 第56號

所有者: 平山申氏家門

所在地: 谷城郡 木寺洞面 九龍里

指定年月日: 1981年 10月 20日



이 龍山齋는 高麗開國公臣 太師 壯節公 申崇謙 將軍의 誕生地를 中心으로 이루어진 장군의 유적지다. 이 유적지는 龍山齋를 비롯하여 九龍門 遺墟碑 및 碑閣이 있는데 高宗光武元年(1897)에 유허비를 세우고 1929년에 壇을 다시 쌓았으며 德陽書院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 道林寺 溪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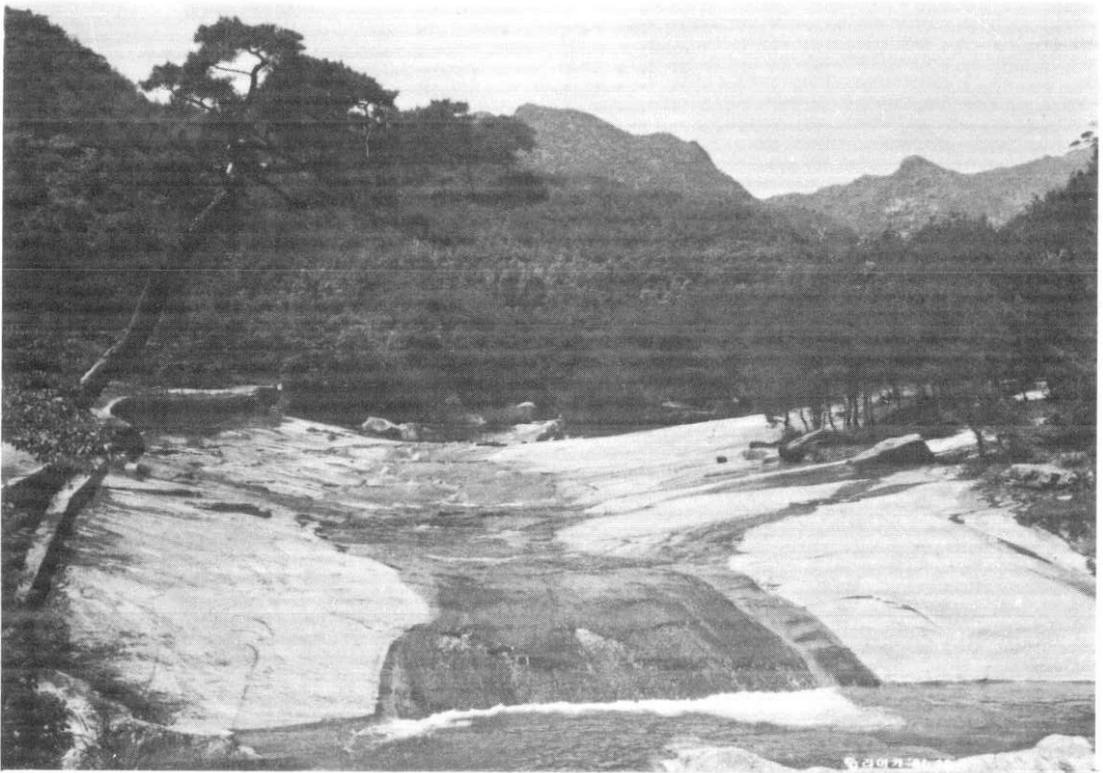
指定番號: 地方記念物 第101號

所有者: 道林寺

所在地: 谷城郡 谷城邑 月峰里 27-1

規模: 溪谷一圓(77.243m<sup>2</sup>)

指定年月日: 1987年 1月 15日



곡성읍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4km의 거리에 신라시대에 창건했다는 道林寺가 있다. 이 道林寺는 動樂山(748.5m)의 남쪽 골짜기를 흘러내려 하나의 계류를 형성하는 소위「道林계곡」가에 세워지고 있는 사찰로서 遊樂공간을 형성하는 계곡과 함께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도림계곡은 풍부한 水脈이 년중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류의 밑바닥에 층층으로 깔려 있는 암반은 장관이어서 시각적으로 情感을 주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계곡에 발달해 있는 암반은 그 특징에 따라 윗편부터 제1반석, 제2반석등과 같이 차례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제9반석까지 있으며 그 길이는 약 1km에 이르고 있다. 또 각 암반에는 적절한 문귀가 새겨져 있으며 특히 五曲盤石의 요요대(樂樂臺) 아래에는 넓다란 潭이 있어, 감상과 물놀이에 좋다.



## 木造神像

指定番號: 地方民俗資料 2號

所有者: 玉果 老人堂

所在地: 谷城郡 玉果面 玉果里

指定年月日: 1976年 9月 30日



高麗神宗(1197~1204) 재위때 翰林學士 벼슬을 지낸 趙通 將軍의 故鄉인 玉果로 落鄉하자 將軍을 사모하던 公主가 玉果로 찾아왔으나 將軍이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限을 안고 죽었다고 한다.

후세에 이지역 巫堂들이 죽은 뒤라도 公主의 限을 풀어주기 위해 趙將軍과 公主의 像을 나무로 彫刻하여 한자리에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애절한 사연이 傳해 오고 있다.

## 道 林 寺

指 定 番 號 : 地 方 文 化 財 資 料 第 22 號

所 有 者 : 道 林 寺

所 在 地 : 谷 城 郡 谷 城 邑 月 峰 里

指 定 年 月 日 : 1984 年 2 月 29 日



新羅眞平王(582)때 神德王后가 맨 처음 佛供을 드려 아들을 낳았다 해서 神德寺라 하였는데 其後 新羅武烈王 7年(660) 元曉大師가 四佛山 華嚴寺로 부터 移住 또한 道學者가 雲集하여 學問을 닦았다 하여 道林寺라 하였다. 境內에 全國에서 唯一한 盤石은 그 위에 高요하게 竝세없이 흐르는 잔잔한 물결이 觀客의 惝을 식혀준다.

# 泰 安 寺

指定 番 號 : 地方文化財資料 第23號

所 有 者 : 泰安寺

所 在 地 : 谷城郡 竹谷面 元達里

指定年月日 : 1984年 2月 24日



新羅 景德王 때 神僧 3사람이 이곳에서 티를 잡고 절을 지어 공부를 하여 大覺하여 이 소문이 전국에 퍼져 많은 學僧이 몰려와 공부하였으며 많을 때는 100명이 넘었다는 전설이 있었으며 처음에는 大安寺라고 부르다가 그후 명승 혜철이 중창 현재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학승과 그때의 절의 모습은 간곳 없으나 보물이 그때의 모습을 웅변해 주고 있다.

보물 적안선사 조륜청정비(보물 273호), 광자선사비(보물 274호), 광자 사자탑(보물 275호), 천순로 동종(1464~1465) (지방문화재 24號), 바라 : 朝鮮太宗時作 金屬文遺品으로는 우리나라 最大의 靑銅으로 되어 있음.

## 觀 音 寺

指定番號: 地方文化財資料 第24號

所 有 者: 觀音寺

所 在 地: 谷城郡 梧山面 善世里

指定年月日: 1984年 2月 29日



谷城 三大寺刹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절이 觀音寺이다. 百濟 第10代 汾西王 3年(西紀312年)에 聖德菩薩이 樂安浦(지금의 筏橋)에서 石船에 실려온 金銅觀世音菩薩을 모셔다가 절을 짓고 觀音寺라 하였으며 山 이름도 자기 이름을 따서 聖德山이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觀音寺는 첫째: 남한 第一의 百濟古刹이며. 둘째: 內陸의 唯一한 觀音聖地祈禱道場이며, 三國時代 說話인 觀音사 創建由來에 바탕을 둔 朝鮮朝(英·正朝)의 沈清傳과 緣由된다는 점이며, 일반적으로 절터는 國師스님들이 定했다는 傳説과는 다른점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서기 1374年(고려 공민왕 23年)에 다섯번째 重創하였으나 壬辰倭亂 당시(선조 25年) 觀音菩薩을 모신 圓通殿만 남고 모두 燒失되고 말았다. 1604年(선조37年) 信熙, 淡元, 淡正 등 세스님과 승은선사가 5년에 걸쳐 玉溪樓와 다섯개의 殿堂을 중창함으로써 大伽藍이 造成되었으며 1912年에 影潭和尚이 전가람을 重修하였는데 不幸하게도 6·25動亂 당시 國寶(제273호)로 지정되었던 고려조 건축물인 圓通殿이 소실되었으며 그 안에 모셨던 觀音像(국보 제214호)이 불에 녹아 頭像만 남게 되었고 1729年(영조5年)에 白梅禪師가 쓴 事蹟記 木版本이 함께 불타버린 不運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1954年 4月 朴昌薰 주지가 부근 암자 大隱庵을 옮겨 重創함으로써 지금의 圓通殿을 再建하게 되었다.

1973년부터 15年동안 주지였던 宗國스님이 重創佛事를 시작하고 地藏庵등을 復元코자 하였으나 겨우 뼈대만 세웠다가 財政難으로 어쩔수없이 세웠던 기둥을 다시 헐어 露積시켜 두고 있는 실정이다. 1982년에 觀音頭像을 다시 造成하였다.

# 德 山 祠

指定 番 號 : 地方文化財資料 第120號

所 有 者 : 海州吳氏門中

所 在 地 : 谷城郡 梧谷面 德山里

指定年月日 : 1984年 2月 29日



이곳은 고려 예종(睿宗) (1105~1122 재위)때 여진족을 토벌하고 9성을 축조한 윤관 장군과 오연총 (吳延寵) (1055~1116) 장군을 받드는 사당으로 조선조 선조 16년(1583)에 함경도 경성에 건립되었다. 그후 홍선대원군 집권당시 폐쇄되었다가 1935년 이곳 덕산으로 옮겨졌다.

## 道 東 廟

指定 番號: 地方文化財資料 第29號

所 有 者: 順興安氏家門

所 在 地: 谷城郡 梧谷面 梧枝里

指定年月日: 1984年 2月 29日



이 건물은 원래 조선조(朝鮮朝) 숙종(肅宗) 2년(1676) 안호(安皓)가 우리나라 주자학(朱子學)의 시조(始祖)인 안향(安珦)과 더불어 송(宋)나라의 주자(朱子)를 모시기 위하여 오곡면(梧谷面) 승법리(承法里)에 건립한 것이다. 그후 구한말(舊韓末)(1905년경)에 안씨종문(安氏宗門)과 유림(儒林)들이 현 위치인 오지리(梧枝里)로 옮겼다. 사당(祠堂)내에는 주자와 안향의 초상화(肖像畫) (120×80cm)와 용(龍)의 형상을 나타낸 향로(香爐), 술잔 등이 있고, 춘추(春秋)로 3월 15일과 9월 15일 두차례의 제사를 유림들이 모시고 있으며 全國儒林들은 한번쯤 다녀갈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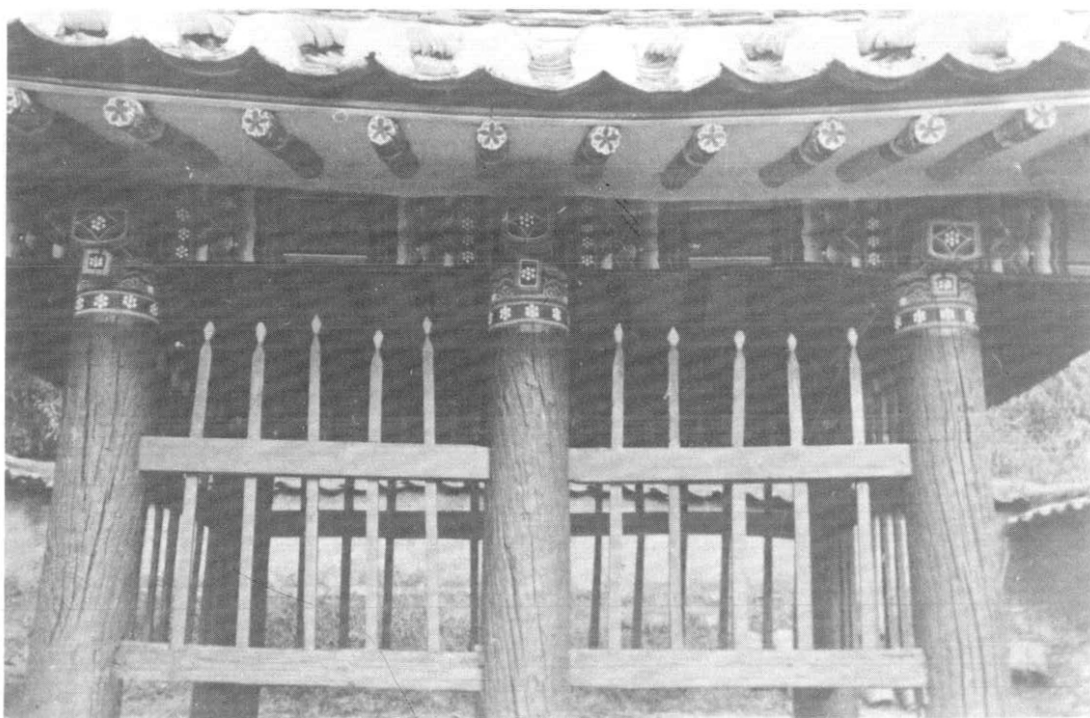
## 柳月坡將軍旌烈閣

指定番號: 地方文化財資料 第25號

所有者: 文化柳氏家門

所在地: 谷城郡 玉果面 合江里

指定年月日: 1984年 2月 29日



柳彭老(文化人) 字享叔號月坡: 嘉靖甲子生 宣祖時人

일찌기 父親의 뜻을 받들어 吳複齊 尹月汀 諸先生의 門下에 나아가 李月沙金清陰으로 道義의 벗을 삼아 學文을 篤實히 닦아 己卯에 司馬兩試에 合格하고 戊子年에 文科에 올라 弘文正字에 陞하였다. 그때 늙으신 父母 奉養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온 이듬해 庚寅年에 父喪을 當하여 祈寒暑雨라도 三年侍墓를 하루도 變함없이 孝道를 하였다. 道臣이 나라에 알리자 임금은 教旨를 내려 成均館學諭를 拜하였다. 때에 壬辰亂을 當하여 鄉里에 계시다가 義憤을 참지 못하고 義兵千餘를 이끌고 梁大樸과 安瑛으로 潭陽府에서 군사를 合하여 鬻峰 高敬命을 推戴하여 盟主를 삼고 錦山城에 力戰하다가 戰死하니 때 三十九歲라. 말이 戰死한 將軍의 머리를 물고 故鄉에 내려와 殉死하니 鄉民은 義馬라 하여 村前에 馬塚을 만들었다. 後 國令으로 三綱門을 세워 臣下를 보내 祭를 지내고 光州褒忠祠와 錦山從容堂에 配享하고 本邑 詠歸書院에 躋享하다.

## 谷城鄉校

指定番號：地方文化財資料 第27號

所有者：谷城鄉校

所在地：谷城郡 谷城邑 校村里

指定年月日：1984年 2月 29日



沿革：朝鮮 宣祖 3年 庚午(3903/1570) 現 谷城邑 校村里 山麓에 始創

◇ 光海11年(己未 3952/1619) 重修

◇ 仁祖 7年(己巳 3962/1629) 新建

◇ 仁祖27年(己丑 3982/1549) 8月23日 重修上樑하다. 時에 方伯李東稷, 縣監 李彦哲

◇ 顯宗14年(癸丑 4006/1673) 重修하다.



## 石造如來立像

指定 番 號 : 地方文化財資料 第28號

所 有 者 : 國 有

所 在 地 : 谷城郡 石谷面 石谷里

指定年月日 : 1984年 2月 29日



高麗중엽때 만든 것으로 推定되며 재앙을 당한 어느 부부가 피난을 가다가 아내가 이곳에서 아이를 업은채 미륵으로 변하고 男便은 이웃 竹山마을에서 미륵으로 변했다는 傳說로 傳해지고 있다.

## 壽 星 堂

指定 番 號 : 地方文化財 第129號

所 有 者 : 順興安氏門中

所 在 地 : 谷城郡 梧谷面 梧枝里

指定年月日 : 1986年 9月 29日



이 건물(建物)은 조선시대 고종12년(1875)에 축조(築造)되어 초기(初期)에는 서당(書堂)으로 사용한 건물이었다 한다.

2단(段)의 낮은 기단(基壇)위에 덩벙주초(柱礎)를 놓고 원주(圓柱)를 세웠으며 그 위에는 주두(柱頭)가 있다.

창방과 장혀는 굴도리의 외목도리와 결구(結構)되어 있고 또한 창방과 장혀의 사이를 조그마한 소로로 짜 맞추었다. 바닥은 온돌과 우물마루를 방과 대청에 각각 사용 하였으며 방에는 반자가 있고 대청에는 연등천정으로 노출되어 있다.

대청에 있는 대양(大樑)은 커다란 원목을 2겹으로 결구(結構)한 점이 특이하며 전퇴(前退)의 우미랑은 그 모습이 뚜렷하다.

규모(規模)는 정면(正面) 5칸(間), 측면(側面) 1칸(間)에 전후좌우퇴(前後左右退)의 건물(建物)로 좌측(左側)으로부터 방 2칸, 대청 2칸 다시 방 1칸을 사용한 팔작(八作)기와 지붕이다.

## 修道庵 매화나무 잣나무

指定 番號: 地方文化財 第147號

所 有 者: 修道庵

所 在 地: 谷城郡 玉果面 雪山

指定年月日: 1987年 6月 1日



統一新羅時代 설두화상이 修道한 곳으로 1928年 林功德보살이 創建

· 梅花나무 높이는 約 4.15m 둘레 約 1.12m

· 잣나무 높이는 約 15m 둘레 2.30m

## 永 類 齋

指定 番號: 地方文化財 第167號

所 有 者: 咸安趙氏家門

所 在 地: 谷城郡 竹谷面 鳳亭里

指定年月日: 1988年 12月 21日



永類齋는 西紀 1917年(丁巳)에 上樑하고 그로부터 三年後인 西紀 1919年(己未)에 竣工한 純韓式 堂宇인바 永은 永久, 類는 氏族을 그리고 正門의 引之는 「가는 사람 끈다」는 뜻을 各各 表現하고 있는 咸安趙氏 26世孫 性祺翁이 主動하여 五代祖 益華先生을 宗主로 追念하고 그 所蒙들의 連綿한 和合과 友愛를 圖謀코자 宗財와 一族의 勞役으로써 建立하였다. 每年 定期大宗會場과 子孫들의 團合 場所로 利用하여 왔으며 開化期에는 改良書堂이란 俗稱으로 靑少年들의 倫理 道德과 더불어 新學文 教育의 道場으로 利用된 바도 있었으며 現在는 咸安趙氏 門中の 子孫들의 共同管理下에 維持되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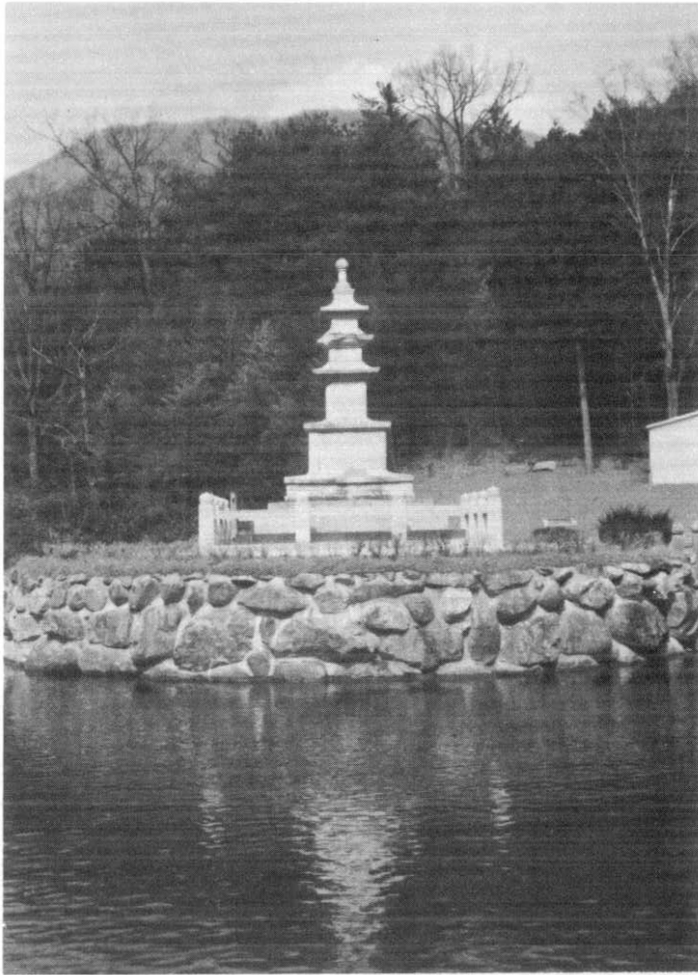
## 泰安寺 三層石塔

指定 番號: 地方文化財 資料 第170號

所 有 者: 泰 安 寺

所 在 地: 谷城郡 竹谷面 元達里

指定年月日: 1988年 12月 21日



三層石塔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성보(聖寶)

## 檀君殿



谷城郡 谷城邑 邑內里 所在

檀君殿은 日帝가 우리 民族思想을 沫殺하려고 彈壓 政策을 썼음에도 白堂 申泰允先生이 主軸이 되어 地方 愛國志士들이 開天祭와 御天祭를 모시면서 1914年(甲寅年)에 谷城邑 三仁洞 밭이랑에 單間 芳屋을 建立하여 祭祀를 지내오다 建國 後 郡民들이 뜻을 모아 現檀君殿으로 移築建立하여 學生들은 勿論 많은 郡民들이 모여 口祖 檀君할아버지를 追慕하고 있으며 民族主體思想을 鼓吹시키는 산 教育場이라 할수 있음으로 文化院長인 이사람은 地方文化財로 指定받고 싶은 아쉬움 뿐이다.

## 馬天牧將軍墓



谷城郡 石谷面 坊松里 所在

마천목(馬天牧) 1358(공민왕 7)~1431(세종 13). 고려말·조선초의 무신. 본관은 장흥(長興). 1381년(우왕 7) 산원(散員)에 초수(初授)한 뒤 여러차례 승진하여 태조초에 대장군(大將軍)이 되었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에는 정안군(靖安君)을 도와 공훈을 세웠다. 1399년(정종 1) 상장군(上將軍)이 되고 이듬해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자 정안군의 선봉이 되어 크게 공헌. 1401년(태종 1) 익대좌명공신(翼戴佐命功臣) 3등에 녹훈되면서 전(田) 80결(結), 노비 8구, 은품대(銀品帶) 1요(腰), 표리(表裏) 1감, 말 1필을 하사받고, 회령군(會寧君)에 책봉되면서 동지총제(同知摠制)로 승진하였다. 그에게 내려진 공신녹권과 교서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1408년 11월에 회령군 겸중군총제(會寧君兼中軍摠制), 이듬해 9월 감순청(監巡廳) 재직중에 전리(典史) 고을귀(高乙貴)를 초달(招撻)하여 치사(致死)한 사건으로 사헌부의 청죄(請罪)를 받았으나 태종의 배려로 곡성(谷城)에 유배됨에 그쳤고, 그해 10월에 십일도도절제사(十一道都節制使)를 설치하면서 전라도도절제사에 복직되었다. 1411년 1월 각위절제사(各衛節制使)을 설치하면서 용기시위사절제사(龍騎侍衛司節制使)가 되었고, 이듬해 5월 전라도병마도절제사판나주목사(全羅道兵馬都節制使判羅州牧使)로 파견되었으며, 1414년에 장흥군(長興君)으로 개봉(改封)되었다. 1416년에는 도총제(都摠制)에 개수되었다가 곧 전라도병마도절제사로 파견되고, 1418년 2월에 내시위절제사(內侍衛節制使)가 되었다. 1418년(세종 즉위년) 8월 좌우패(左右牌)를 좌우금위(左右禁衛)로 개편하면서 우금위절제사가 되고, 그달에 장흥군, 1423년 9월에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가 되었다. 1424년 3월 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곡성현으로 하향, 곧 어머니상을 치렀으며, 1428년 7월 장흥군에 복직되었다. 이듬해에 연로를 이유로 치사를 청하였으나 도리어 장흥부원군(長興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고, 부원군으로서 죽었다. 성품이 광심(廣深)하고 순근(醇謹)하며, 무략이 있어 시위와 국방에 공헌이 있었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地方記念物로 指定이 要望됨.

## 永歸書院



谷城郡 兼面 玄亭里 所在

1. 位置：全羅南道 谷城郡 兼面 玄亭里 後391番地
2. 沿革
  - ① 明宗19(3897/1564 甲子)년에 玉果詠歸亭 下竹林리에 立祠하여 河西 金麟厚를 祭享하다.
  - ② 高宗5年(4201/1868 戊辰) 9월에 大院君中外的 未賜額書院을 撤毀시킴으로서 此院도 亦 不免 하였다.
  - ③ 大韓民國(4293/1960 庚子)에 移建于現地(兼面 玄亭里)하여 雪巖許紹, 道峰許繼, 月坡柳彭老, 靑坡辛二剛을 祭享하고,
  - ④ 大韓民國(4277/1964 甲辰)년에 省内通文查至하고,
  - ⑤ 大韓民國(4296/1965 乙巳)년에 存齋魏伯珪를 같이 祭享하여 全部 六位를 모심.
3. 祭奠儀：年1回 3月18日 奠幣禮, 初, 亞, 終禮, 飲福禮, 望瘞禮
4. 施設：祠宇, 內三門, 講堂, 外三門, 直舍, 直舍出入門, 宰所, 便所
5. 相揖禮：設師席于堂上, 画圖于階下, 執禮讀法, 東西階相向上, 執禮抗聲讀笏記(中略)一讀法抗聲讀規約. 同聽規約訖, 執禮讀法立於西階下, 東西班首諸生曹司立於東階下北上相何揖, 禮畢升堂序齒講所 讀書(朱子, 白鹿洞規).



## 箕聖殿



谷城郡 竹谷面 盤松里 所在

高宗光武3年(1899) 後孫인 幸州奇氏宗中 發議로 箕子の 遺德을 追慕하기 爲하여 그해 3月 現住所地에 殿宇를 創建하고 平壤 箕聖殿에 奉安되었던 箕子影幀을 還奉하여 以來 儒林에서 每歲 享祀한다. 그런데 平壤箕聖殿은 世祖14年 戊子(1468) 創建되었다가 그後 撤享되었다.

祭享日 : 每年 3月初 2日

## 小松 鄭在健



곡성출신으로서 고종 25년에 양과에 합격하여 동29년에 선략장군용양위부사과(宣略將軍龍驤衛副司果)에 올라 동년9월에 다시 통훈대부성균관전적(通訓大夫成均館典籍)에 옮겨 다음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서 벼슬을 마치고 전원에 은퇴하니 다시 나와 벼슬하기를 권하였으나 굳이 사양하였다. 국치망국의 날에 음식을 끊고 북향사배 한뒤 서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은 칼로 자결하니 그때 나이 68세였다.

그 유서에 “亡國之臣 義不可苟生 不在明治之世 仗劍而死 死於唐死也兩等勿以我死動心 動苦耕讀勉諸友愛旬葬而 勿爲造主 以慰我眞實”라 하였다. “나라 망한 신하는 義는 가히 구차히 살지 않는 것이니 맹세코 明治의 세상에 있지 않기 위해서 칼에 앞드려 죽으니 죽음이 마땅하여 죽는다. 너희는 나의 죽음을 흔들리지 말고 부지런하고 갈고 읽고 모두들 우애에 힘쓸 것이며 열흘만에 장사 지내고 신주를 짓지 말고 나의 참됨을 위로하라” 하였다.

## 梧岡祠



谷城郡 梧谷面 梧枝里 所在

勉菴先生이 對馬島에서 倭國의 것은 물한모금도 안마신다고 하며 短食으로 숨을 거둔後 淳昌十二義士였던 省菴 趙愚植, 拜軒 趙泳善은 勉菴先生의 愛國忠節과 드높은 道學思想을 흠모하는 뜻에서 先生 殉國 後 4年째인 1909(己酉)年에 梧岡祠를 建立하고 先生의 位牌를 奉安함과 同時에 祠內에 建立한 日星堂에 先生 74歲時의 石芝蔡龍臣 先生이 그렸던 (前府使蔡龍臣 移摹寫라고 官職과 姓名을 쓰고 落款된) 影幀을 奉安하고 祭祀를 모셔온데 7年後인 1916(丙辰)年에 愛國意氣抹殺政策으로 先生의 魂이 서려있는 梧岡祠를 強制로 毀撤하고 影幀을 日警에 押收 當하였다. 其後 7年만인 1922(壬戌)年에 日警에 禁囚된 것을 趙愚植과 先生의 子 崔永祚 等이 日警에 請願하여 返還받아 梧岡祠를 重建하고 다시 影幀을 奉安했는데 1937(丁酉)年에 또 日警이 祠宇를 毀撤하고 影幀을 押收하려 하자 憤한 마음을 禁할수 없어 影幀 保管열쇠를 口に 물고 祠堂옆에 서있는 銀杏나무에 목을 매어 殉節했다.

1946(丙戌)年에 省菴義士의 子 趙東麟은 先親의 業을 되살려 民族魂을 심고저 隣近 儒林과 地方有志의 뜻을 모아 梧岡祠를 建立하고 1949(己丑)年 先生의 位牌옆에 蔡石芝가 移寫한 影幀을 다시 모시게 된 後 1954(甲午)年에 儒林의 뜻에 따라 省菴 趙愚植 義士를 1956(丁酉)年에 拜軒 趙泳善 義士를 配享하여 儒林들은 每年 陰三月中 丁日에 祭祀를 모시고 있다.

## 白堂 三・一運動 記念碑



谷城郡 谷城邑 邑内里 所在

### 3・1대한독립만세 절규

白堂 申泰允 先生은 己未年(1919) 3・1運動 當時 先生의 主動으로 丁來聖, 金仲浩, 梁成俊, 朴秀昌, 金敬錫, 金起燮, 金泰洙, 丁瑢泰, 吳鍾泰, 林洛驥, 金景宅, 鄭練時, 志士 및 많은 郡民 學徒들과 總蹶起하여 大韓獨立萬歲를 絶叫타 倭警에 被逮되어 京城高等法院에서 懲役二年 宣告確定 大邱刑務所 移監 家産沒收 10年間 人權剝奪 資格停止 받은바 있는 獨立有功者로서 政府의 建國 褒賞을 追敘하다.

## 尹正九 志士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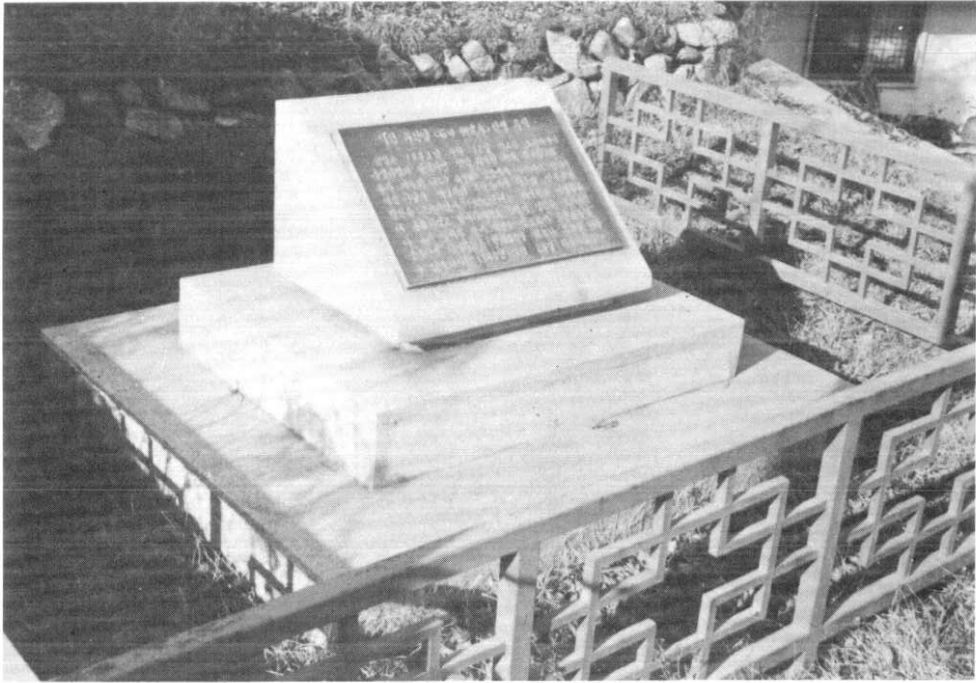
谷城郡 谷城邑 月峰里 所在

尹正九(1883. 3. 22-1953.11.24)

全南 谷城 出身. 韓末 鎭衛隊(國軍)에 入隊하여 服務中에, 高宗이 強制로 退位하고 軍隊가 強制로 解散되어, 實權은 日帝무리가 強奪하고 國家는 빈 껍데기 名稱만 남았으므로, 義憤을 못이겨 義兵에 加擔하여 몸을 바치기로 決心하였다.

于先 軍資金 募集責을 맡아, 1907年 9月경부터 地方의 富豪만 골라서 軍資金을 募集할새, 때로는 遊擊戰을 展開하여 日軍警과 死鬪를 거듭하고, 때로는 적의 機關을 攻擊하여 屠戮과 破壞로 戰果를 거두었으나, 마침내 日軍警에게 逮捕되어 長期刑을 받고, 오랜 歲月 獄苦를 치루다가 滿期出獄하였다.

## 石田 柳健永 建國褒賞碑



谷城郡 梧谷面 梧枝里 所在

石田 柳健永先生께서는 1906年 勉菴 崔益鉉先生の 揮下에서 義兵活動을 했으며 1914年 石田 書堂을 開設하여 靑少年들에게 民族精神과 抗日思想을 注入시키면서 1939年 3月 16日字로 創氏制度 實施豫定 發表하자 全國을 巡回하면서 民族 抹殺政策이다 力說하고 決死 反對鬪爭을 展開하다 1940年 7月 24日 끝내 創氏制로 實施가 發表되자 우리民族은 망했다는 遺書를 남기고 自決한 先生으로서 1977年 12月 13日字로 建國褒章을 받음.

## 義馬塚



玉果面の 북쪽끝 南原郡 帶江面の 접경 중방마을 앞 내동부로 빠지는 삼거리 들가운데 사방 폭 6m, 높이 3m 가량의 비교적 큰 무덤으로 되어 있다. 이 말무덤은 속칭 彭老 말무덤이라 하여 立面과 玉果面 儒林들이 중심이 되어 보호하고 전나무, 단풍나무 등도 심어져 있다. 이 말무덤의 주인공 柳彭老가 살았다. 彭老의 字는 君壽 또는 亨淑이라 하고 號는 月坡인데 壬辰倭亂이 일어나기 38년전 1554년에 태어났다. 22살 나던 해에 司馬試에 合格해 進士가 되었다.

35살 나던 해에 그는 다시 文科시험에 合格해 弘文館 正字(正九品) 벼슬을 폈다. 壬亂이 나기 5일전 그는 다시 成均館 學諭(縱九品)에 임명됐다. 學諭가 되어 그는 급히 하향길에 공주에서 준마를 얻어 마을에 돌아와 동지를 규합하고 潭陽으로 달려가 高敬命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한 뒤 그는 敬命(당시 60세)의 막장으로 安瑛과 함께 종사관이 되었다.

이들이 담양에서 피로써 나라를 위해 죽기로 결의한 것이 5월 29일 7천여명의 義兵과 더불어 權慄장군에 敗해 全羅道를 밀려온다는 日人大將 고하야가와(小早川降景) 군대를 맞으려 떠났다. 7월 9일 錦山 싸움이 벌어졌는데 명색이 관군이라는 郭영과 영광군수 金成憲이 도망치는 바람에 고전을 치른다. 柳彭老는 대장인 高敬命이 적진에 아직 있다는 것을 알고 「大將없는 막하장군이 살아 있을 수 없다」며 포위되어 있는 高敬命 장군을 구출하기 위하여 말을 돌릴때 이를 말리는 부하가 말고삐를 잡고 위험하니 뜻을 바꾸도록 간청을 하면서 고삐를 놓아 주지 않으니 고삐를 잡고 애걸하는 부하의 손을 칼로 자르고 기어이 적진에 뛰어 들어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때 그의 말은 피해를 입지 않아 살아났는데 그 말이 적의 칼에 동강이난 彭老장군의 머리를 물고 3백리 밤길을 달려 彭老의 生家인 合江里에 나타났다. 彭老 장군의 生家에는 婦人 金氏가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다. 三更인 야밤중에 남편의 말이 집에 뛰어들어 울므로 급히 뛰어 나갔더니 입에 물고온 彭老 장군의 목을 金氏婦人의 치마폭에 조심스럽게 건네주더라는 것이다. 이 길로 말은 그의 마굿간에 들어가 9일간이나 여물을 마다하고 계속 울며 굶어 죽었다 한다.

## 聖 輪 寺



住 所 : 谷城郡 玉果面 玉果里 650

面 積 : 約10萬坪

遺 物 : 大雄殿, 地藏殿, 聖蓮臺(禪房)

    祖禪堂, 淨雲堂(요사채), 백련당, 일주문, 宗務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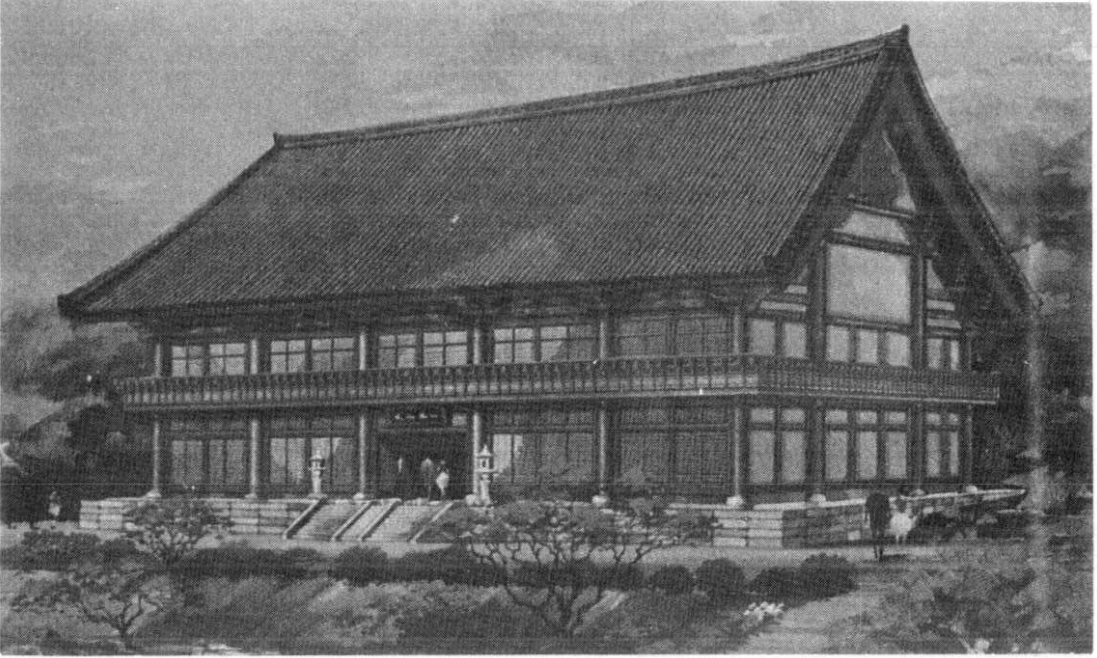
조실스님 : 淸華스님

주지스님 : 白宇스님

着 工 : 1989年 9月 着工하여 大대적인 佛敎事業을 繼續 推進中에 있음.



## 美術 展示館



谷城郡 玉果面 玉果里

本 展示館은 아산 조방원이 全南道에 기증한 作品과 全羅道 作家의 作品을 전시하여 선인들의 숨결을 보고 배우는 전당으로 활용키 위해 현재 연건평 300평의 규모로 건축하고 있다.

## 李相俊과 古典舞踊



本 籍 : 谷城郡 木寺洞面

學 歷 : 光州師範學校卒, 서라벌藝術大學校卒

經 歷 : 南道藝術高等學校講師 7年

師團法人 韓國舞踊協會 全南支部長 1.2.3代 被選

舞踊研究學院經營 36年

李相俊은 家風이 頑固한 星州 李氏집안의 4男4女中 막내아들로 태어나 서라벌藝大를 卒業后 國校教師와 順天女中 講師를 거쳐 靑雲의 뜻을 품고 日帝 36年동안 사라져간 우리나라 唯一의 古典舞踊에 脈을 잇고자 父母兄弟의 만류를 눈물로 뿌리치고 舞踊研究學院을 開設하여 經營中 서울圓覺社 發表會를 始作으로 서울市公館 및 서울藝術劇場 發表會를 갖었던 結果 韓國藝總으로부터 認定을 받아 1968年 台灣 文化院 招請公演, 在日居留民團 本部 招請公演과 日本 全國 巡廻 公演을 마쳤고 韓國代表 民俗舞踊團으로 엑스포70 日本 오오사카 出演을 마쳤으며 其外 世界 43個國의 招請公演으로 國威宣揚에 貢獻한 李相俊은 舞踊家 同僚들로부터 無形文化財 指定의 勸誘를 斷乎히 拒絕하며 門下生中 現在 大學校 舞踊科 教授 또는 京鄕 各地에서 散在하여 舞踊指導者로 活動하고 있음을 40余星霜 認苦의 보람으로 느낀다 하며 남은 餘生 오로지 古典舞踊 傳承 保存에 이바지 하겠다 한다.

## 韓炳文의 烙竹粧刀



全南 谷城郡 목사동면 공북리에 거주하는 韓炳文씨는 烙竹粧刀를 만드는 분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 名脈을 유지하고 있다. 종조부 韓基東씨로부터 13才때 부터 25才까지 그 技法을 배웠다.

烙竹은 대나무의 표면에 인두로 글씨나 무늬를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그 무늬는 구름·산수·사슴·매화·난초·다람쥐·왕새우·대나무·포도넝쿨 등이고 그 글씨는 漢詩가 主를 이룬다. 대나무 材料는 2·3年 자란것들 중에서 쓸만한 작은것은 산골짜기 척박한 땅에서 힘겹게 자란것들 중에서 고른다. 쇠로 된 칼도 대장간 같은데서 부탁해다가 쓰지 않고 직접 쇠를 달구어 두드리고 갈고 해서 만든다.

烙竹粧刀은 먼 옛날 사대부들의 호신용으로 또는 양반들 규방규수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앞으로 烙竹粧刀가 傳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人間문화재로 國家에서 지정하여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當國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要望된다.



# 谷城文化財

---

1992年 8月 15日 印刷

1992年 8月 30日 發行

發行處: 谷 城 文 化 院

印刷處: 清 進 文 化 社

光州直轄市 東區 錦洞 107

☎ 223-4346

---

이 冊은 道文藝振興基金 및 郡費일부로 發刊되었음.

